

2021

제주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간담회

2021.09.30.(목) 14:00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적경제포럼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주 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목차

1. 2021 사회적경제정책간담회(제1차 사회적농업) 개요	5
2. 사회적농업 정책 동향과 발전방안	11
3. 제주지역 사회적농업 활동 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	31
4. [별첨]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 이슈	45

01

제 1차 사회적경제와 사회적농업

2021 제주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간담회
제 1차 사회적경제와 사회적농업

2021.09.30.(목) 14:00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적경제포럼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 제주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간담회

I 개 요

- 추진목적
 - 제주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사회적경제 민간 단위 주제별 정책 동향에 대한 학습을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소통과 정책 발굴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
 - 금년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적경제포럼’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활동을 추진코자 함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회적경제포럼)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참석대상 : 도의회 사회적경제포럼 참여의원(8명)
분야별 관련 사회적경제기업(8명) 등

* 도의회 사회적경제포럼 참여의원 명단(가나다순)

- 고은실,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박원철, 양병우, 정민구, 현길호 의원

○ 주요주제

- ① 사회적경제와 ‘사회적농업’ _ 9월
- ②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융’ _ 10월
- ③ 사회적경제와 ‘사회적돌봄’ _ 11월

○ 진행방식

- 주제별 전문가 초청 발제(정책동향, 사례 소개 등)
- 도의원 및 관련 현장 관계자 참석 간담회(제주 발전방안 토론 및 정책제안)

○ 후속 발전방향

- 돌봄 및 금융 주제 관련은 아젠더 확산을 위한 지역 토론회(세미나) 개최 예정
- 향후 심화 학습모임 또는 정책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2021 제주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간담회 제 1차 사회적경제와 사회적농업

1 개 요

- 가. 일시 : 2021.09.30.(목) 14:00 ~ 16:00
- 나.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다. 주제강연 : 사회적농업 현황 및 방향
 - ① 강연자(소속) : 정민철 대표(젊은협업농장)
 - 주요내용 : 사회적농업 정책 동향 및 발전방안
 - ② 강연자(소속) : 한태호 회장(제주사회적농업연구회)
 - 주요내용 : 제주지역 사회적농업 활동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
- 라. 진행순서

시간	내 용	담 당
14:00~14:02(02분)	간담회 개최 및 순서소개	사회자
14:03~14:05(03분)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0(05분)	인사말씀	사회적경제포럼 김경미 대표의원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김효철 상임대표
14:10~15:10(60분)	주제강연 (2명, 각 30분씩)	주제별 전문가 초청
15:10~15:12(02분)	간담회 진행 발언	사회적경제포럼 김경미 위원장
15:12~15:55(45분)	상호 의견 나눔	사회자
15:55~16:00(5분)	마무리 및 폐회	사회자

마. 참석자(14명)

연번	소속	성명	직위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적경제포럼	김경미	대표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적경제포럼	김경학	의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적경제포럼	박원철	의원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적경제포럼	정민구	의원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적경제포럼	현길호	의원
6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한인수	과장(미정)
7	제주사회적농업연구회(담을밭)	한태호	회장
8	제주사회적농업연구회(풀개협동조합)	강명실	이사
9	제주사회적농업연구회(제원하늘농원)	오순금	대표
10	제주사회적농업연구회(가뫼물)	이정아	대표
11	제주사회적농업연구회(한살림생산자연합회)	이정섭	국장
12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김효철	상임대표
13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호진	정책위원장
14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종우	센터장

사회적농업 정책 동향과 발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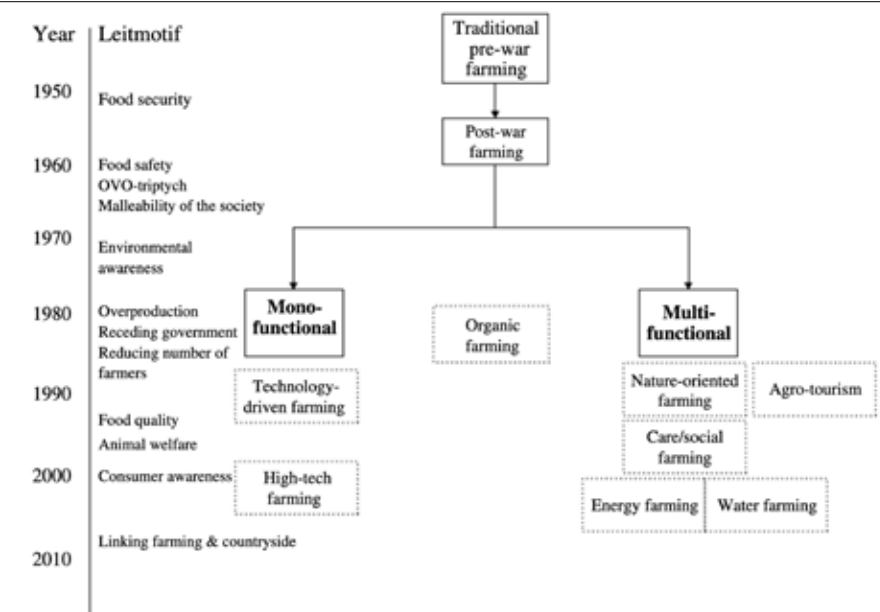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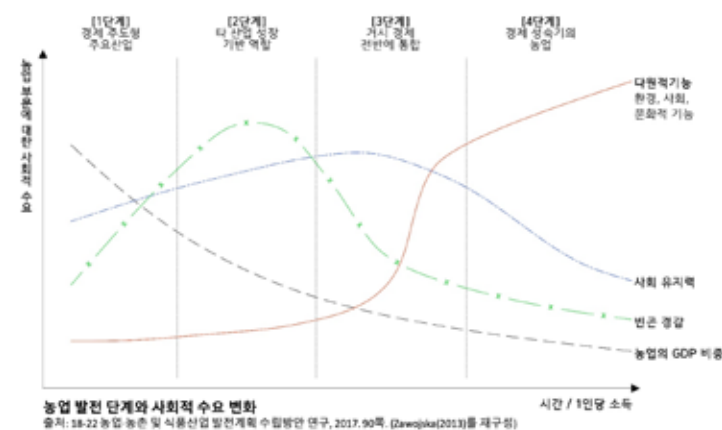


Fig. 3. Agricultural trends in the Netherlands from 1945 to present.

The Changing role of agriculture in Dutch society
October 2009, The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147(5)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농업의 공익가치를 '농업부문이 식량 및 섬유를 제공하는 본원적 기능에 더해 환경 보전, 경관형성,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유지 등에 기여하는 역할/ 세계무역기구(WTO)는 농업과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사회경제적 기능이라고 명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전 등 농업이 가지는 경제 외적인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으로 규정/ EU는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중심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시행
- 스위스 연방헌법상 농업조항 주요 내용: ①농업의 기능(안정적 식량 공급/연자원 보존과 농촌경관 유지/ 농촌 인구 유지), ②정부의 역할: 농민의 상호호혜의무를 전제로 직불금 형태로 농가소득을 보전, ③농민의 의무: 토양수자원 보호와 생물다양성 유지 등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업 생산 활동/ 스위스 직불제 사례: 경사 직불제/ 생태보상 직불제/ 동물복지형 직불제/ 여름방목 직불제(여름철 산 방목시, 늘 목동이 감시하는 조건)
- 농촌경제연구원, 2016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 응답자의 62.1%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가치가 있다고 응답/ 응답자 54.6%는 국가 정책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음으로 응답

연도	농업정책	활동 내용	차별
2015년 (9개소)	농촌공동체연구소	지역학살의 농촌정책	충북 제천
	신원농업	청매인 사업	충북 보은
	평택농업	청매인 사업 및 고물	충남 홍성
	원주시농업정책연구소	고령농 소독증진, 장애농자립, 청년농 육성	전북 완주
	무주농업센터	청매인 사업	전북 무주
	연가농업연구소	차량정책, 임목과 등 대체적 임목의 안정 및 경제성 사업	전북 임실
	여안농업	노년 일자리와 귀농인 정착	전남 영광
	미호농업	공공기관지원사업 농촌정책	전남 해남
	청송농업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2016년 (9개소)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2017년 (9개소)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청송농업연구소	청매인 사업	경북 청송

참고 2 '21년도 사회적농장 현황(60개소, ■표사: 신규)			
소재지	법인명	소재지	법인명
경기 (3)	화성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군산	사당법인 산동 ■
	고양 ■(사)알수주 ■	전남	교육협동조합 마동학교 ■
	용인 ■(주)리나원 농업회사법인 ■	영광	여인동학 영농조합법인
강원 (5)	화성연내(사)발달 영농조합법인	해남	어촌해남 영농조합법인
	원주 ■(주)가신(주) 농업회사법인 ■	내주	화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주)	국성	황무내협동조합
충청 (7)	농업회사법인 당곡(주) ■	장성	농업회사법인 영광우 장농(주)
	공주시농업 사회적협동조합 ■	순천	사당법인 지역사랑복지협회 ■
	농업회사법인 신흥	장흥	농업회사법인 소농두레(주) ■
충북 (7)	농업회사법인 청남마을(주)	청송	청송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주)
	농업회사법인 청남마을(주)	경산	영농조합법인 벼랑밭농장
	농업회사법인 ■(주)고인마을 ■	포항	고내일원농원 ■
충남 (7)	농업회사법인 ■(주)신우파 총이	무안	■(주)배대기 농업회사법인 ■
	충주 ■(주)교육협동조합 ■	대성	평평마을 협동조합 ■
	충청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거창	영농조합법인 수송대발호마을
충남 (7)	합동조합 행복농장	합천	■(주)미향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담농 ■	영남 (5)	전주 농업회사법인 진양호합영농원(주) ■
	충청우익마을농협영농조합법인 ■	김해	대갈영농조합법인 ■
전남 (7)	농업회사법인 ■(주)공주 이리	전주	농업회사법인 공작우드베리(주) ■
	농업회사법인 ■(주)영양우드	제주 (3)	농업회사법인 법산살림(주)
	농업회사법인 다함원(주) ■	세종	농업회사법인 ■(주)평화농
전북 (10)	전주 ■(주)오리 ■	세종	농업회사법인 기원물주식회사 ■
	전주 ■(주)반향소 영농조합법인	세종 (3)	진여울 영농조합법인
	전주 ■(주)한주사계곡재래트루프	세종	죽안동 영농조합법인
전남 (10)	전주 ■(주)지음협동조합	전남 (2)	신안국교동창회농협농협 ■
	전주 ■(주)관주로일부드 영농조합법인	전남 (2)	농업회사법인 ■(주)새마을
	전주 ■(주)산가평일부드 영농조합법인	전남 (2)	농업회사법인 ■(주)새마을
전북 (10)	전주 ■(주)농업회사법인 유천회사 우지농원경원	전남 (2)	농업회사법인 ■(주)새마을
	전주 ■(주)익산시농촌마을연구회 ■	전남 (2)	농업회사법인 ■(주)새마을
	전주 ■(주)고정 농업회사법인 행복한 차유농장	전남 (2)	농업회사법인 ■(주)새마을



제주도 |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 치유농업
 치유·재활·자립 | 스트레스·휴식
 제주도 | 전라북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농촌활력과





일일 프로그램

탈북청소년
자살유가족아동청소년
알콜중독자, 노인복지관 등

대상에 따른 눈높이 활동
수확 및 요리, 자연 놀이
일회적 체험 및 방문



1박 2일 이상

자연과 정신건강학교 가족캠프
노숙인 자조모임, 대안학교 학생사회
복지실무자 워크숍 등

자연관찰, 체험, 지역탐방
목공, 요리, 농업 활동 등
농업*농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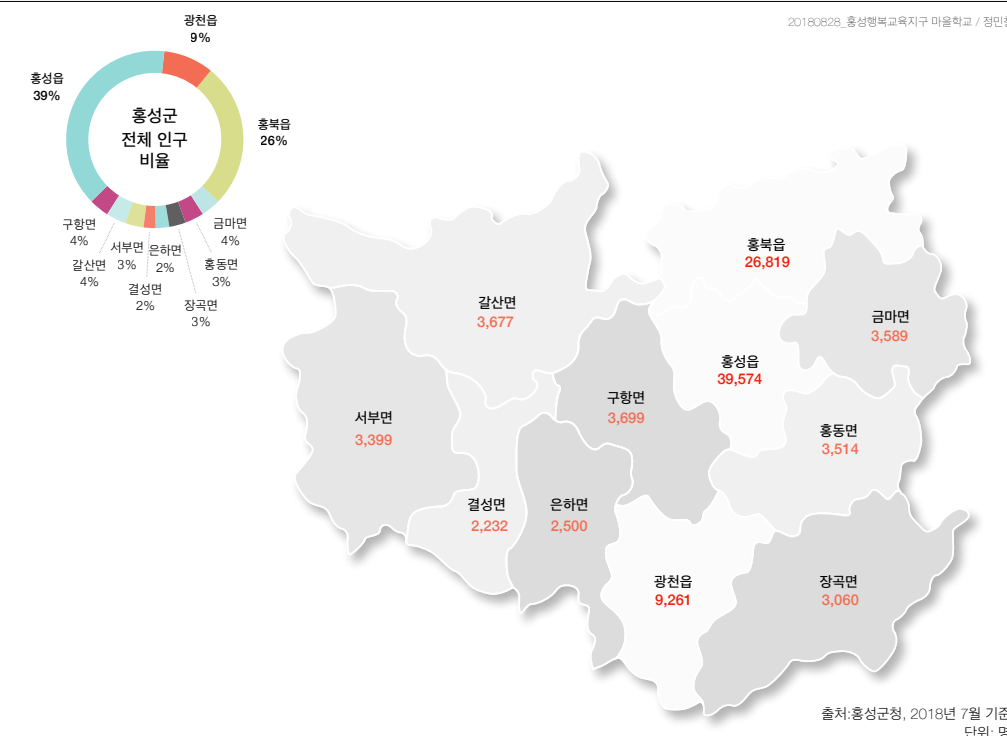
연간 진행

자오나학교 월간 농사체험
2박 3일, 총 6회
농촌과 관계 맺기/자연의 흐름 알기

나사렛대 치유농업시스템양성과정
2박 3일 2회, 4박 5일 1회
사회적 농업 및 지역 이해



다수 | 소수
소수 | 다수
1회성 | 연속성
이벤트 | 일상성
농업 + 농촌



	목포시	은평구	성북구	장곡면
면적(km ²)	50.60	29.70	24.57	54.90
인구(년)	238,426 (16)	497,920 (16)	438,031 (18)	3,100 (17)
행정구역	23개동	16개동	20개	32개리

사업운영계획 > 5. 마을 돌봄 모임 운영

6. 커뮤니티케어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장애인+비장애인 모임



사업운영계획 > 3. 꼬마농부학교

3. 꼬마농부학교

장곡초등학교 돌봄반 학생 대상
농업 교육 프로그램 진행
연중 14회



사업운영계획 > 2. 돌보는 농부 학교

2. 돌보는 농부 학교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군내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농업 교육 프로그램 진행
연중 14회, 총 19명 참가



기초과정

4박 5일 / 2박 3일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일상적인 기초 농업 활동에 참여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농장 및 지역, 일정, 농작업 소개
농작업 림동조합 행복농장, 절은협업농장, 보리밭, 그 외 지역 농가
마을 만나기 마을 산책, 마을 화단 가꾸기, 마을 행사 참여
마을 나누기 호미, 이왕, 물살릴 제조, 하루 소감 나누기
자연 느끼기 근교 나들이, 자연물 만들기 체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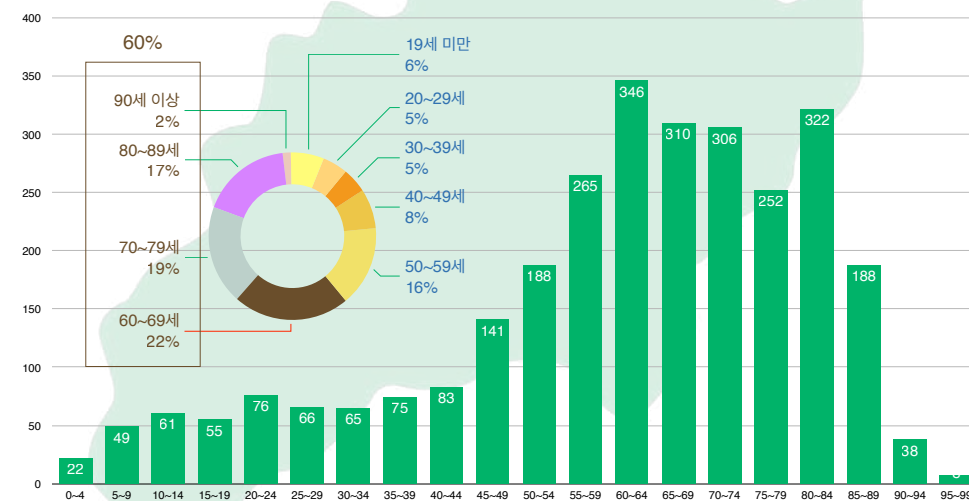


1 시범사업 개요

- 배경 농식품부 2018년부터 농장 지원 중심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 목적: 충남의 사회적 농업은 농식품부의 '농장별' 지원과 차별화하여 '지역복지와 결합'하여 지역의 관련기관·단체·민간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추진협의체) 중심의 공동참여형(충남형 모델)로 추진
-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충청남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지원기간: 2년
 -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여부 검토
- 사업비: 320백만 원(도비 160, 시군비 160)
 - 네트워크당 80백만 원(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 내용
 -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 지원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지원
 - 사회적 농업 교육비
 - 사회적 농업 전문가 컨설팅비 지원 및 사설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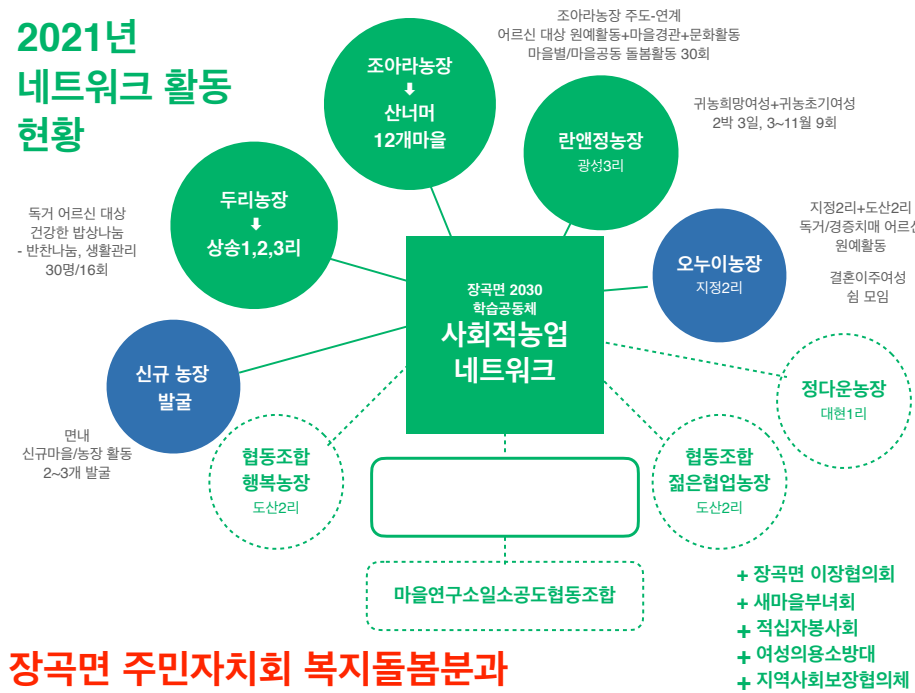


총인구 2,916명
인구밀도 53.1명/km²
고령화율 48.83%
성비 92.86%



[자료출처] 홍성군청 2021년 4월말 기준

2021년 네트워크 활동 현황



장곡면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천태1리 조아라농장

초고령 마을, 마을 인구 절반 이상이 80대 이상, 노인회 마을봉사활동 활발
어르신 원예치료, 하바리움, 그림, 공예 활동으로 어르신 여가 활동 지원
마을내 폐교(반계분교) 활용 노인통합돌봄거점 조직 의지



장곡면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상송1리 두리농장

마을내 고독사 연속 발생으로 마을 차원에서 자발적 활동 시작
격주 반찬조리 및 배달 봉사, 마을내 독거노인 20명 지원
독거노인 생활돌봄 (격주 반찬나눔, 매주 쓰레기 수거, 수시 생활관리)



장곡면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광성3리 한앤정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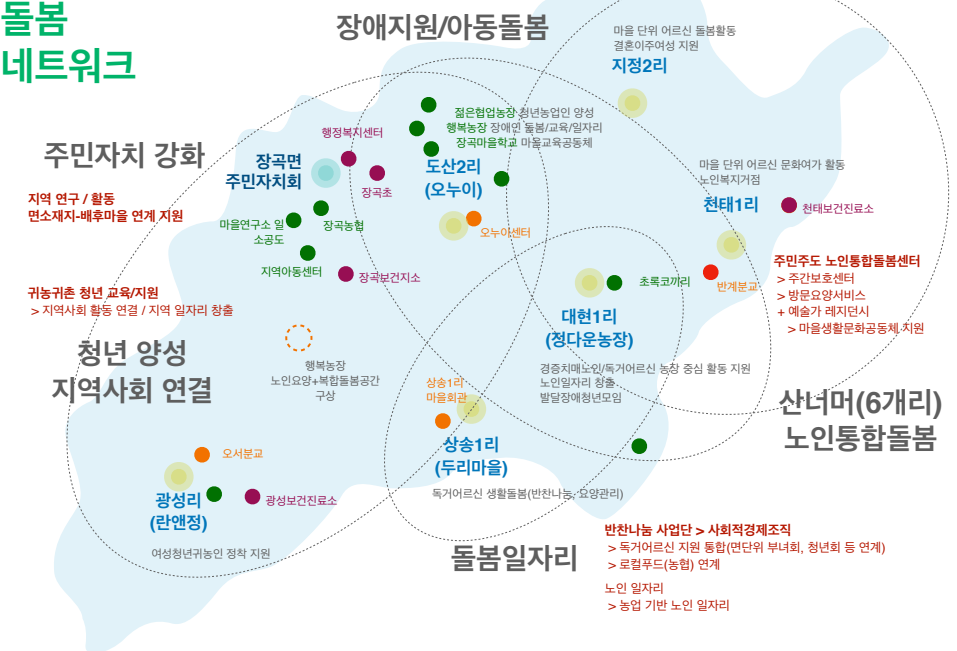
귀농희망여성과 지역 내 귀농초기 비혼여성 농업 교육 및 관계형성 지원
매달 2박 3일 캠프 진행, 농작업 교육 및 지역 자원 소개



장곡면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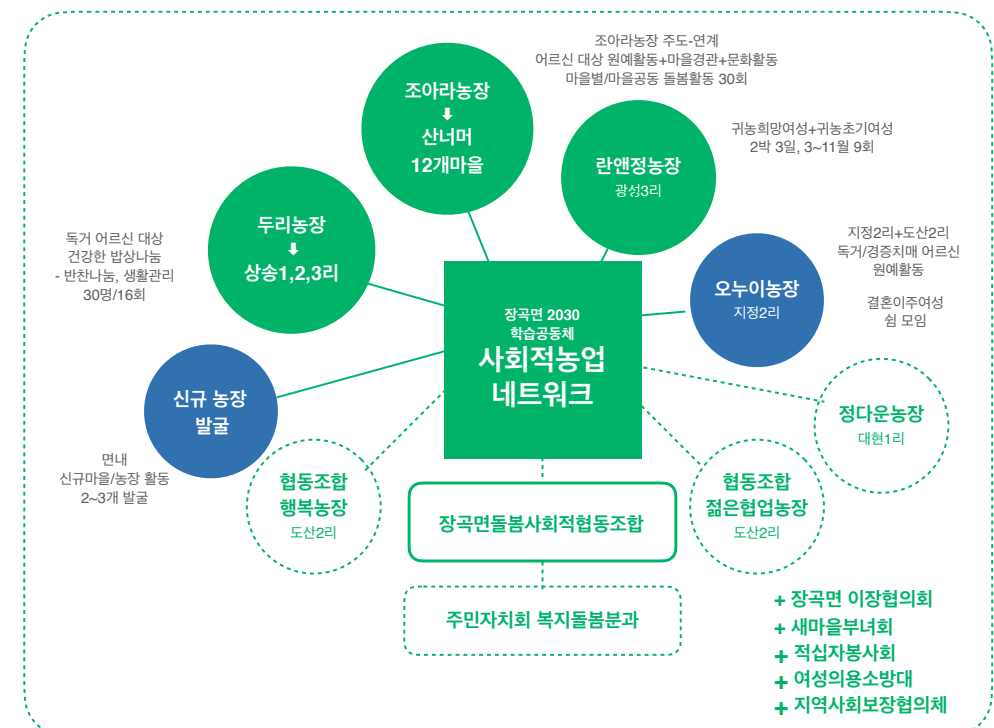
대현1리 정다운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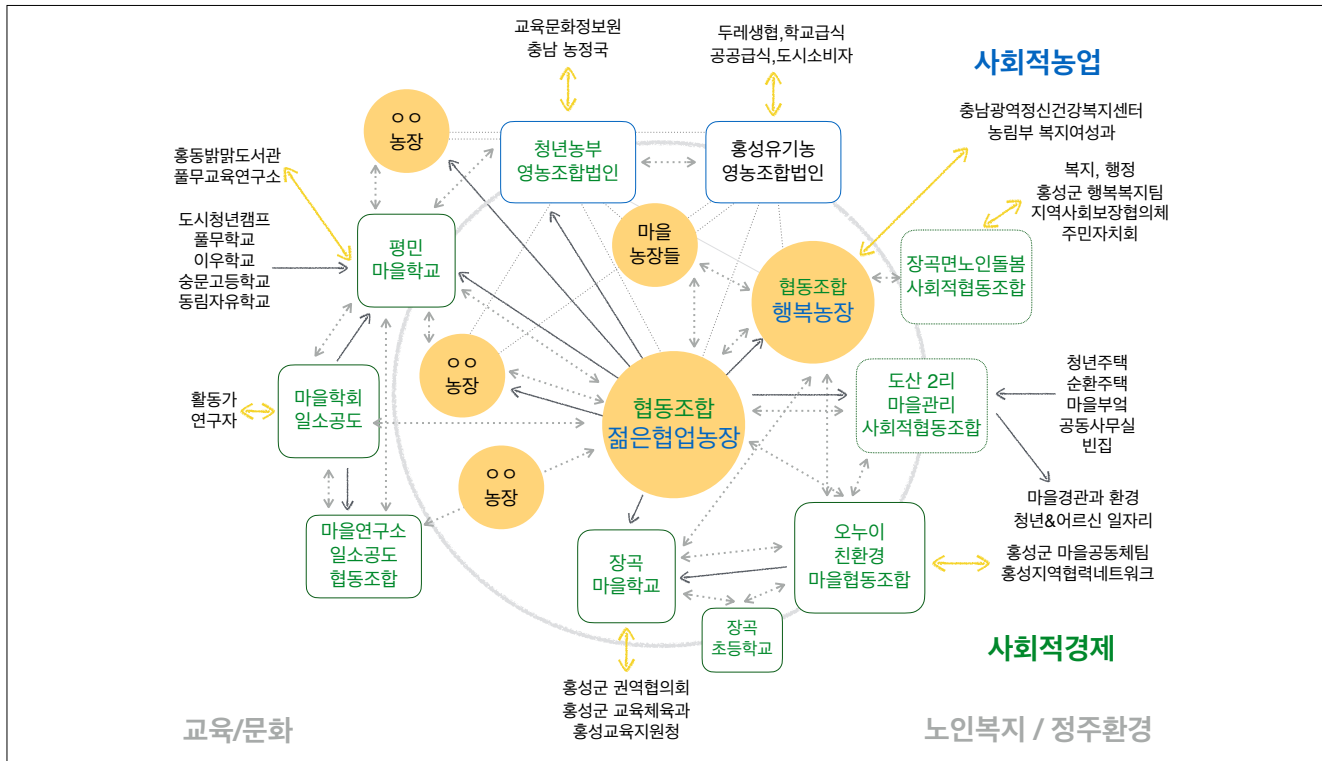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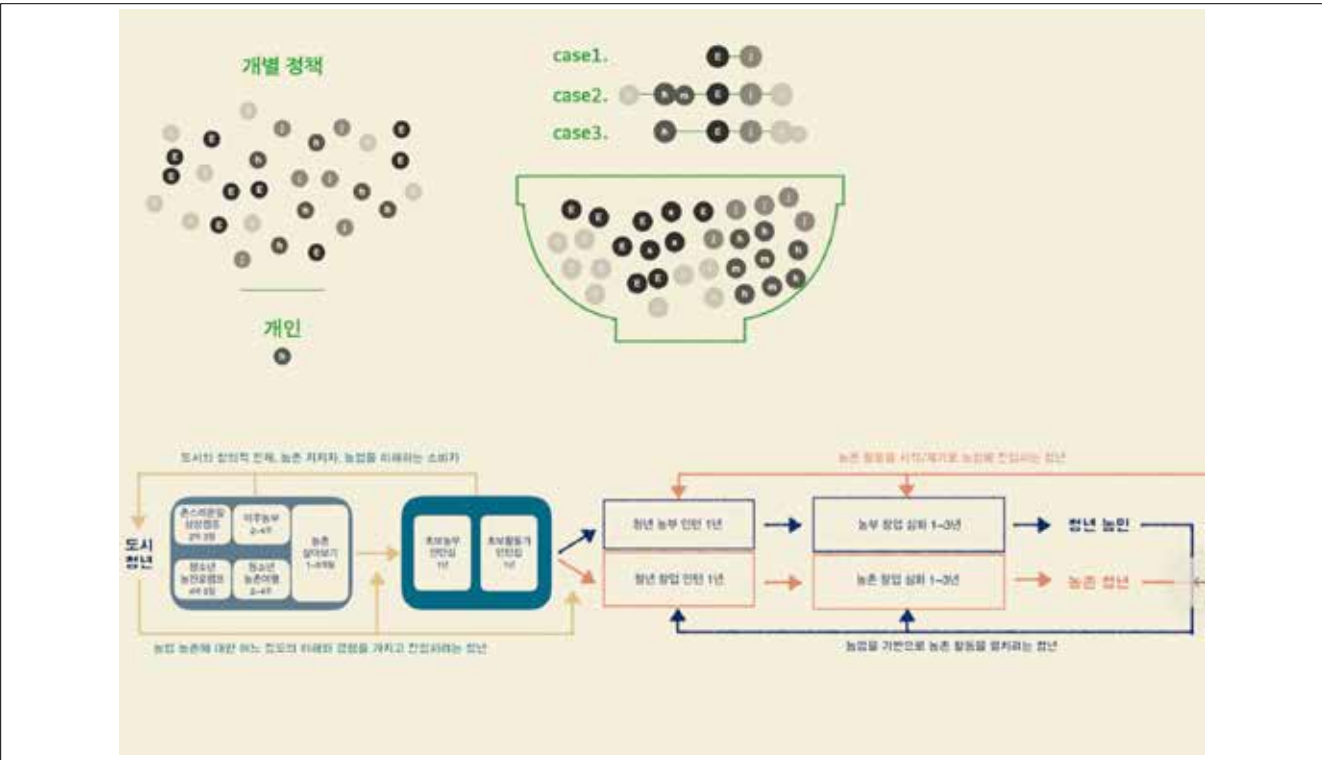
체험교육농장 > 돌봄농장으로 확대 전환 > 노인일자리 제공 목표
장곡면 경증치매노인 돌봄프로그램 / 마을 독거어르신 식생활개선 활동
> 2021년 농림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네트워크 계속 참여

장곡면
돌봄
네트워크장곡면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지정2리 오누이농장

지정2리, 도산2리 독거어르신, 치매어르신 통합 원예활동
이후 결혼이주여성 심터 프로그램 진행 예정





04 종합계획도

홍성군 정주환경개선 공동체활성화 마스터플랜수립 종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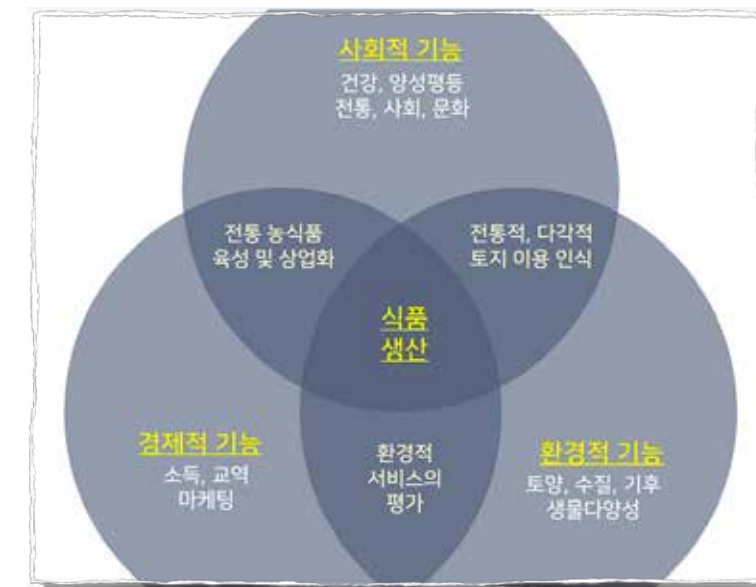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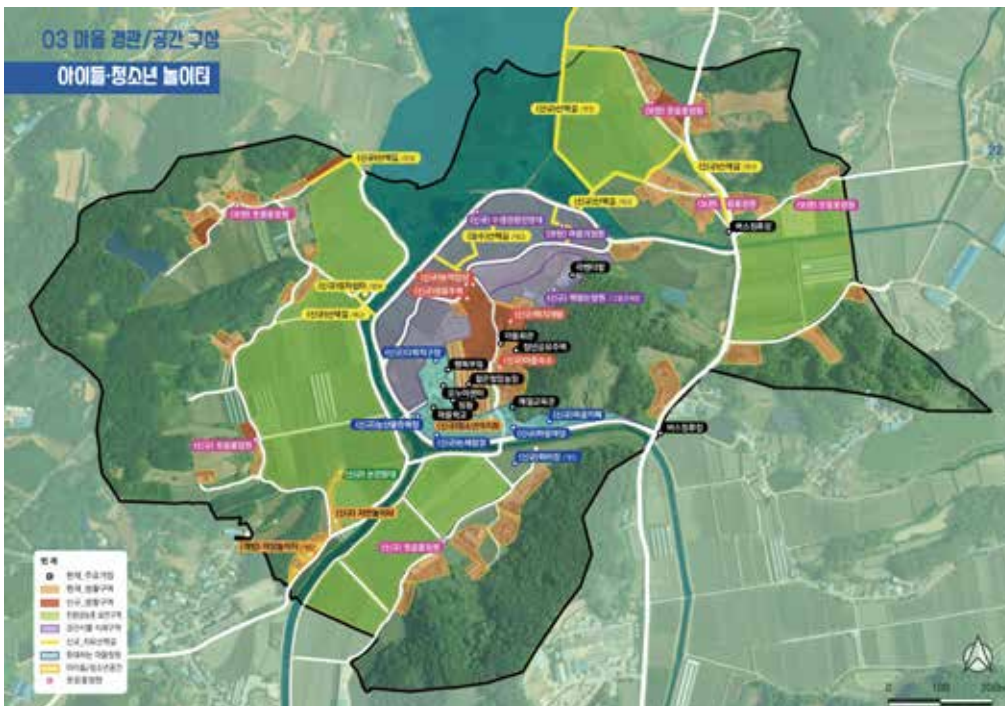


2013년 젊은협업농장



03 마을 경관/공간 구성

아이들-청소년 놀이터



03

제주지역 사회적농업 활동 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

제주지역 사회적농업 활동 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

제주 사회적농업연구회 준비모임/ 사회적농장 담을밭 책임자 한태호

1. 들어가며

제주지역은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농업 조례를 2019년 5월 8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018년 2월부터 전국에 사회적농장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왜? 사회적농업을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현실적으로는 농촌, 농업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탈시설을 위한 돌봄의 대안으로 사회적 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농업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사회적농업 이름도 생소하다. 사회적농업이 뭐냐고 물으면 “사회적농업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과 합의도 부족하다.

제주지역 사회적농업 활동은 미비하다. 사회적농장 지정농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고분분투하고 있다. 사회적농업이 계속되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사회적농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놓치고 보지 못한 것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제주지역 사회적농업 활동 현황

제주지역 사회적농업 활동 현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제주 사회적농업연구회 활동, 둘째는 사회적농업 아카데미, 셋째는 사회적농장 사례이다. 농림부와 제주도의 정책 사업은 사례에 포함해서 정리한다.

1) 사회적농업연구회 준비모임 활동

[2020년 활동]

5월 27일 - [준비모임] 밥상살림(담을센터) : 준비모임 제안

6월 30일 - [1차 회의] 공심채

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텃밭, 하우스 200평(바질 등 재배, 가온시설)

이주여성사업 진행 어려움 : 자녀에 대한 돌봄 해결

7월 30일 - [2차 회의] 담을밭
2020년 사회적농업 아카데미(가안) 검토,

8월 25일 - [3차 회의] 풀개협동조합
(참석 : 담을밭 5, 풀개 4, 공심채 1)
귀농, 귀촌 12명으로 구성, 작목은 블루베리 2,000평, 감귤 1,000평
20년 수직팜(수경재배실) 운영했으나 코로나로 예약 취소, 수확 포기

9월 22일 - [4차 회의] 제주드림 사회적협동조합(서귀포시 일주동로 8565)
참석 : 담을밭 5, 공심채 1, 제주드림 1
농장(400평) - 발달장애인 청년과 공동텃밭 감귤과 밭으로 운영.
코로나로 중단상태(2020년 4월 텃밭사업 시작/ 주 1회 목요일 2시간)
2018년 준비모임 시작, 2019년 11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2020년 생존요리교실 2달간 운영, 주 1회 수요일

10월 8일 - [5차 회의] 제주연구원
참석 : 담을밭 6, 풀개 2, 공심채 1, 밥상살림1, 안경아, 김자경 연구원
제주도 사회적농업 조례 조항 검토 - 지원사업 범위 및 대상 검토
주요논의 및 결정 : 준비모임을 해소하고 2021년 연구회로 전환한다.

11월 19일 - [6차 회의] 제주연구원
참석 : 담을밭 5, 풀개 2, 공심채 1, 안경아2, 김자경연구원
[주제발표 : 제주도 마을 변천과 농업] - 발표 김자경 박사

[2021년 활동]

4월 8일 - [1차 회의] 제주연구원
참석 : 담을밭, 가피물, 공심채, 제주마미, 수라재, 안경아, 김자경 연구원
2021년 신규 선정 사회적농장 소개 및 21년 사업계획 논의

5월 11일 - [2차 회의] 제주연구원
참석 : 담을밭, 제원하늘, 수라재, 일배움터, 공심채, 제주마미, 풀개2
밥상살림, 안경아, 오윤정 연구원

[주제발표 : 이탈리아 정신보건 개혁과 네덜란드 케어팜 사례]
발표 : 안경아 박사

6월 16일 - [3차 회의] 제주연구원
참석 : 담을밭, 풀개, 제주마미, 수라재, 안경아, 김자경 연구원
[주제발표 :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
발표 : 김자경 박사

▶ 8월 이후 코로나-4단계로 연구회 활동 중단상태.

2) 제주 사회적농업 아카데미 활동

■ 2020년 제주 사회적농업 아카데미

진행 : 총 5회, 장소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현장답사
주최: 제주사회적농업연구회 준비모임, 주관 : 밥상살림 사회적농장 담을밭

1강 : 8월 22일(토), 11시, 주제 : 청송 해뜨는농장 사례 발표
주제 : 사회적농업 개론 및 해뜨는농장 사례
강사 : 윤수경(청송해뜨는농장 대표, 영남제주권역 거점농장)

2강 : 9월 8일(화), 9시30분 별거벗은 공화국
주제 : 자연유기농업과 치유
강사 : 김윤수 (농장 대표)

3강 : 9월 15일(화) 10시, 물피힐링팜
주제 : 사회적농장과 마을
강사 : 양희전(힐링체험농업, 물피힐링팜 대표)

4강 : 10월 6일(화), 10시.
주제 : 일본의 사회적 농업 진행에 대한 배경과 사례
강사 : 강내영(지역퍼실리테이터, 일본총합연구소 연구원)

5강 : 10월 13일(화), 10시.
주제 :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제주형 사회적농업의 필요성
강사 :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2021년 제주 사회적농업 아카데미
진행 : 한살림생산자 제주도연합회, 장소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현장답사

【기본과정 1기/2기】

일정		과목명	주요 교육내용	강사정보	
날짜	시간			강사명	소속/직책
7/06 9/7	10:00~12:00	사회적경제 이해	·사회적경제 개념이해 ·사회적경제 역사,사례	강종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13:00~15:00	사회적농업 이해	·사회적농업 개념이해 ·유럽사회적농업 역사, 사례	김자경	제주대 전임강사
7/15 9/8	10:00~12:00	사회적농업 사례	·사회적농업 일본사례	강내영	서울시 도시농업위원
	13:00~15:00	제주농업	제주전통농업과 사회적농업	이성돈	서부농업기술센터
	15:00~17:00	사회적농장 운영	·사회적농업 운영사례	한태호	담을밭농장대표

【심화과정】

1강	8월9일	2시간	<사회적경제>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김신양	오후 1시~6시
2강	8월9일	3시간	<지역관리기업> 한국사회적경제연구	

			회 김신양		
3강	8월 16일	1시간	<치유농업> 물뒤희링팜 양희전		오후1시~6시 돌봄유형별 1시간 강의후 전체 토의
4강	8월16일	1시	<노인돌봄> 여민동락 이은경		
4강	8월 16일	1시간	<교육돌봄> 담을밭 한태호		

3) 제주 사회적농장 현황
제주 사회적농장은 제주형과 농림부 현황으로 나뉘서 정리한다.

(1) 농림부 사회적농장 지정
2020년 밭상살림 사회적농장 ‘담을밭’ 선정되어 현재 운영 중.
2021년 가뒀물농장, 제원하늘농장 선정되어 운영 중.
1개소당 6,000만 원 사업비 책정. 최장 5년 지원.

(2) 제주형 사회적농장 지정
2020년 풀개, 공심채, 일배움터, 사라숲 4곳을 선정.
사업영역을 돌봄형, 돌봄+고용형 두 가지로 제한, 1개소당 5,400만 원 사업비 책정.

2021년 사업 2년차 사회적농장 모집 공고는 났지만 이후 진행 확인할 수 없음.
사업예산도 운영비 1개소 4,000만 원으로 줄었다.

(3) 개별 농장 사례

	사업영역	대상자모집	사업내용	사업진행	사업효과	사업어려움	요구사항	비고
답을받	교육	공개모집	귀농인 교육, 지역돌봄	귀농 실천가, 지역돌봄	영농기술 습득 사회적농업 이해	지속 가능한 모델 개발 어려움	사업 영역별 사업집행 차이 인정	
가뫼물	돌봄	남원읍사무소 추천(노인 4분)	노인돌봄	월, 수, 금 3시간 영농활동	자존감 자신감 획득	프로그램 개발, 코로나로 방문 중단	예산 집행 운영의 모 필요	
제원하늘	돌봄	주민자치센터, 읍사무 추천	다문화 음식, 귀농인 기술 교육	월, 수 2시간 교육	고충 상담과 종재, 문화 이해	초기 모집, 마을 적응 어려움	교육 과정에 대한 인정(이수증)	
폴개	돌봄	자체 모집(10~20명)	노인, 발달장애 인 영농체험	주 2일	영농체험 즐거움에 꾸준히 참가	사업예산 계획대로 집행 요청	체험 결과물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사회적 농장 활동 사진

담을밭	가뫼물
	
	
제원하늘	폴개
	

3. 개선방안 제안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해야 한다.

개별 사회적 농장은 사업 참가자 모집, 운영, 프로그램 개발, 평가, 지역 확장까지 모든 책임을 안고 있다.

이 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계센터의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 농장과 행정을 연결하고 필요한 사업을 연계해줄 중계센터 개설은 첫 번째 과제이다.

두 번째는 전문가의 역할이다. 농장 사업을 조언하고 지역과 농장을 관계 맺는 사업 개발은 농장이 하기 어렵다. 제주형 사회적 농업 개발을 위해서 2년 전문가 한 명을 채용해서 중계센터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영구 용역의 형태를 띠어도 좋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부탁한다. 제주에서 이제 사회적 농업은 첫걸음을 뗐다. EU는 중요한 농업정책 중 하나로 사회적 농업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다. 탈시설을 목표로 복지정책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은 사회적 농업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사회적 농장은 농촌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정) 2019-05-08 조례 제 22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3. “사회적 농장”이란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으로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지원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 6. 사회적 농장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관련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3. 사회적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사회적 농장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예산지원)

-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농업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 농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3.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
 4. 사회적 농장에 대한 농업경영·기술·세무·노무·법률·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 5.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 6.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제9조(지정취소)

-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해 위원회가 지정취소를 의결한 경우
 4. 보조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회적 농장 및 그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4

[별첨]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 이슈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이슈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상황

사회적 경제 조직이 농촌에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들의 연합회가 2021년 초 기준으로 2만 개에 육박했는데, 사업장이 농촌(읍·면)에 소재한 것이 4,872개에 달한다. 거의 25퍼센트를 차지하는데, 한국 총인구 중 농촌 인구의 비율이 20퍼센트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성장세가 도시보다 다소 빠르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실천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정책 의제^{agenda}는 ‘포용성장’과 ‘사회혁신’ 두 가지다. 포용성장이란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경제성장’의 개념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사회혁신은 ‘사회 안에서 행위자들 사이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토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한국 농촌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 ‘사회적 경제’라는 접근방법이 지니는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가 현존하는 곳에서 사회적 경제가 혁신적인 거버넌스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즉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셋째, 사회 서비스 소비자와 시민(주민)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포용에 기여한다.

요약하자면,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 실천은 ‘지역사회^{local community}’가 안고 있는 현실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도시와 달리 농촌의 사회적 경제에서는 항상 ‘지역사회’라는 개념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그래야 한다.

2. 현재 농촌에서 두드러지는 사회적 경제 이슈

‘먹거리 관계 시장’ 확장 및 활성화

로컬푸드 운동을 비롯하여 학교급식 등 다양한 경로로 분기하며 확장되고 있는 ‘먹거리 관계 시장’ 운동에서 협동조합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실천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는 종래의 농식품 시장에서 배제된 소규모 농업 생산자들의 시장 참여,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 촉진, 먹거리를 매개로 농업·농촌의 공공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굳이 열거할 필요 없이 잘 알려져 있다. 관련된 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 비교적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다. 정책의 양적 팽창 과정에서 농협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는데, 농협이 아닌 협동조합들과 농협들 사이의 거동에는 다소 차이가 난다. 과제는 먹거리 관계 시장 활성화를 위

한 정책과 현장의 실천이 전개되는 가운데, 그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근본 지향이 은폐되지 않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제어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돌봄^{care} 등 사회서비스

돌봄은 이론적으로는 정부의 직접 개입 영역이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서비스 전달을 시장에 맡긴 형국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그 과정에서 농촌 지역은 전형적인 공백 지대로 남겨졌다. 즉, 돌봄에 있어 ‘정부실패=시장실패’가 현저하게 두드러진다. 특히, 인구 과소화의 늪에 빠진 면^面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 지역 사회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돌봄의 실패’에 대응하려는 실천들이 일부나마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주민들이 결성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끼어들어 기능을 수행하려는 노력과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틀 안에서는 해소되지 않는 ‘서비스 영역’의 주민 욕구를 충족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제는 돌봄 같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정 투입 없이 작동할 수 없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이 그 공공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기성의 제도화된 사회서비스 영역이 아닌 곳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영역을 개척하려는 사회적 경제 실천은 아예 공공부문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새로운 공공재정 투입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긴요하다.

농산물 가공 및 농촌관광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중에서 만성적인 농업소득 저위저위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여러 해 동안 중요하게 추진해온 정책이 농산물 가공이나 농촌관광 등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함으로써 보완적인 소득원을 확충하려는 시도였다. 이른바 ‘6차산업’이라고 거론되는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종래에는 개별 농업경영체 수준에서의 경영다각화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전개해왔는데, 최근에는 한국의 농가들이 보유한 자본의 양이 적기 때문에 지역 수준에서 ‘협동’과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이 이 분야의 실천에서도 강조되기 시작했다. 가령, 개별 농가가 가공시설을 갖추기 어려우니 협동조합 형태로 농산물 공동가공시설을 확보하고 공동이용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가공 및 농촌관광 분야에서의 사회적 경제 방식 적용이 이루어낸 작은 성과들을 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전환 및 개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과제다.

농촌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초 서비스(상점, 음식점, 교통 등)

인구 과소화 농촌 지역에서 주민들의 욕구 또는 필요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전형적인 시장 실패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상업적 서비스가 철수하는 상황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이에 대응하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면에 하나밖에 없는 상점, 음식점, 세탁소 등을 유지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시·군마다 독점적으로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운수회사들의 비효율성 문제를 극복하고 ‘작은 버스’를 읍면 단위에서 운행하려는 협동 조직의 노력도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시장 실패를 극복하려 애쓰지만 중과부적인 상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농촌 지역의 인구가 워낙 줄어들어, 아무리 노력해도 지속가능한 경영 구조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영역이 시장 영역이므로 공공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통설은 과연

옳은가? ‘공공성’ 혹은 ‘공공 개입의 원칙’에 관한 통념이 농촌에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와 동시에 지역사회(민간)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부문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 확보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그 유력한 조직 방식이 사회적 경제일 듯하다.

교육·보육

전통적으로 혹은 관행적으로 학교 교육은 담장 밖의 누군가가 넘보거나 개입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었다. 오로지 교직자들이 모든 것을 의사결정하는 신성한 영역이었다. 그러나 수십 년 이어져 온 농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공교육의 수준 저하 등의 문제는, 사실 학교 교육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른바 ‘학교살리기 운동’을 비롯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운동’ 등 공교육 영역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실천이 농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에는 그런 실천을 조직화할 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식을 차용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사회적 경제의 조직 원리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사체’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협동조합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런 실천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공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할 여지는 없는가?

문화·환경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향후 확장되어야 할 농촌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영역이다. 도시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훨씬 많지만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문화유산이나 농촌의 자연환경 및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데에는 지역사회 주민의 조직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조직화에 있어 유력한 형식이 협동조합이며, 그런 취지의 활동을 전개하려는 협동조합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만, 이런 활동은 경영의 관점에서 보자면 수익성이 현저하게 낮지만 공익성은 아주 높은 활동이다. 이런 협동조합들이 산출하는 공익적, 사회적 가치를 근거로 공공 부문의 적절한 지원과 개입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의 일종이며, 보전복지나 교육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문성의 함정과 칸막이 문화를 타파하려는 사회혁신의 실천이다. 한국에서도 사회적 농업 실천이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도 시행되고 있으나 초기 단계다. 현재의 관련 제도나 농촌 지역사회의 열악한 여건으로 본다면 쉽지 않은 실천임에 분명하다. 필경, 개별 조직이나 개별 행위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지역에서 여럿이 모여 협동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것이 유력한 전략이 될 것이며, 그런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조직하는 것이 당면한 중요 과제다.

3. 문제 제기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는 개별 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영이나 사업 시행이라는 혼한 과제 못지 않게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서 그 가능성이 조명된다. 즉, 달리 말하자면, 공익적이거나 사회적인 가치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된다. 이는 사회

적 경제 조직의 활동이 공공 정책과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뜻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더욱 강조되는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재정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결정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농촌의 인구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경제 실천을 조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은, 이른바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개별 조직 창업 과정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머무를 때, 농촌에서는 그 활동이 크게 소용되지 않는다. **면 단위 지역까지 더욱 깊게 침투하여 사회적 경제 실천에 실제로 조력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